



# 금속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24.08.29  
**교섭  
속보**  
VOL.18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4.08.29.(목)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 전면파업 2일차 사측의 결단을 요구한다!

디에스시 총회 가결되어 임단협 마무리...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6차례 임금제시 끝에 의견접근 총회 진행



8월 29일(목), 경주 근로자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18차 지부 집단교섭에서는 현대아이에이치엘, 에코플라스틱, 엠에스 3개 사업장이 임금인상 안을 제시했다.

교섭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노측 교섭대표인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이른 아침에 교섭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만큼 노,사가 의견접근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남은 사업장도 오늘 교섭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디에스시 총회 가결을 축하 드린다.” 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경주사용자협의회 대표는 “교섭이 막바지에 접어 든 것 같다. 노사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교섭 시작 전 현대아이에이치엘 박기병 실장은 이른 아침 교섭 요청을 하게 되어서 송구하고 5차례 안을 제출 하였지만 타결이 되지 못하였다. 회사 정책상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최대 반영하여 제시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하였다.

오늘 교섭 요청을 한 현대아이에이치엘 사측은 오늘 여섯 번째 제시 안을 제시하여 지회는 정회 없이 최종 의견접근을 하였다.

현대아이에이치엘	1차(8.28)	2차(8.28)	3차(8.28)	4차(8.28)	5차(8.28)	6차(8.29) (의견일치)
기본급	월 72,000원 (시급 300원)	월 76,800원 (시급 320원)	월 79,200원 (시급 330원)	월 84,000원 (시급 350원)	월 84,000원 (시급 350원)	월 84,000원 (시급 350원)
타결/일시/성과급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품질목표달성격려금	400만원	500만원	550만원	550만원	600만원	600만원
임금손실 위로금						100만원
지급시기	기본급인상분 10/6 이전, 타결일시금 9/9, 품질목표달성격려금 11/28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무자, 2024년 입사자에 한 해 공헌일 수 적용					

에코플라스틱은 세 차례의 안을 제시했고 오늘 역시 지회의 수용 거부로 의견일치 되지 못했다.

에코플라스틱	1차(8.28)	2차(8.28)	3차(8.28)	4차(8.29)	5차(8.29)	6차(8.29) (수용거부)
기본급	320원 (월 76,800)	시급 350원 (월 84,000원)	350원 (월 84,000원)	350원 (월 84,000원)	350원 (월 84,000원)	370원 (월 88,800원)
타결일시금	300만원	380만원	430만원	450만원	500만원	500만원



엠에스는 어제에 이어 2 차례 안을 추가 제시했으나 지회는 제시 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수용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엠에스	1차(8.27)	2차(8.27)	3차(8.29)	4차(8.29) (수용거부)
기본급	300원	320원	320원	320원
타결/일시/성과급	700만원	750만원	830만원	880만원

속개된 교섭에서 에코플라스틱지회 김만조 지회장은 수용거부 의사를 표명한 후 발언에서 “사용자 협의회, 교섭위원분들께 저희 단사 때문에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사측이 고민을 하고 안을 제시 하였다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교섭이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주 까지 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간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합당한 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일 교섭은 경주 근로자복지관 대관이 오전 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장에 들어가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주가 넘어가면 지부에서도 다른 판단을 해보겠다. 지금 생산현장에서 비조합원들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다, 주 52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도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빠른 타결이 아니면 지회 의사와 무관하게 지부에서 고소 조치를

다음주에 들어 가도록 하겠다.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계속 타결을 미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감안해서 내일 안이 좁혀지길 바란다.” 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교섭은 추가 제시안 없이 09시 55분에 폐회 되었다.